

종합

대구광역시

2024년 7월 8일 월요일 2



동구청, 에너지절약 캠페인 실시

동구청은 지난 4일, 평화시장 닭동집골목에서 동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여름철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실시했다. 온도주의의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캠페인에는

차맥페스티벌 방문객들에게 실생활 에너지 절약 방법을 안내하는 홍보물(부재)을 배부했다. 온도주의는 온도를 주의(注意)하자, 온도주의(主義)자가 된다는 이중적 의미로 넋지디자인을 활용해 실내 적정온도(여름철 26°C, 겨울철 20°C) 준수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캠페인이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소상공인들의 작은 변화가 더 큰 변화를 만들어 낸다. 이번 캠페인이 우리 지역 전체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중구청, 청년팝업 클래스 쿠킹체험 및 창업토크 성료

<두 번째>

복합문화공간 무영당 40여 명 참여
1인가구 위한 쿠킹 체험 및 창업 토크

중구청은 지난 6일 복합문화공간 무영당에서 개최한 2024년 청년 팝업클래스 두 번째 클래스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행사는 중구 삼덕동에 기반을 둔 청년 창업 요식 브랜드 위코(WECO) 공동대표인 이재완과 이영환을 초청해 진행했다.

행사는 사전 신청한 40여 명을 대상으로 1인 청년가구를 위한 간단한 요리 메뉴인 참치타코, 논알칼리 하이볼 등 쿠킹 체험을 진행했다.

또 예비 창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경험을 공유하고 F&B 업계로의 창업 브랜딩 방법, 홍보 마케팅 전략 등 가감 없는 창업 토크를 진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청년은 "이번 클래스를 통해 무영당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고, 중구에서 청년들을 위한 이런 다양한 클래스를 한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다"며 "다음 회차 클래스가 또 신청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이번 팝업클래스에 참여한 청년들이 다양한 경험과 즐거움을 찾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청년들이 성장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성로에서 만나는 2024년 청년팝업클래스'는 9월까지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명사 초청 토크콘서트,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자취 요리 쿠킹, SNS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숏폼 영상 제작 등 다채로운 클래스로 구성돼 북성로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 내에서 매달 개최된다. 조미경 기자

대구시, 빅데이터 인재양성... 지역산업 혁신 주도

지난 5년 2500여 명의 교육생 배출
맞춤형 교육으로 기업에 실질적 도움

대구시는 데이터 확보와 활용 능력을 겸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7월부터 올 연말까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과 함께 빅데이터 교육 6개 과정을 개설, 시민 35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디지털을 매개로 산업 간 경계가 사라지는 '빅블러(Big Blur)시대'를 맞이해 각 기업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산업 예측과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산업 전반에 패러다임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산업현장에서의 데이터 활용은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는 반면 현장에서의 수요를 충족할 데이터 전문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대구시는 2019년부터 지역 산업 종사자와 빅데이터 전문가를 대상으로 꾸준히 교육을 진행해 온 결과, 지금까지 2500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데이터 분석경진대회 등 국내외 관련 대회에서 50건 이상의 수상실적을 냈다.

특히 취업연계 과정 이수자 100여 명 중 30여 명은 공공기관, 민간기업, 은행 등으로 취업하는 등의 가시적 성과를 이뤘다.

올해는 기존의 데이터 인식개선을 위한 단기 과정 중심에서 나아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맞춤형 인력 양성을 목표로 1개월 이상의 중장기 과정을 편성하고 수요조사

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업스킬링(Upskilling) 교육과 리스킬링(Reskilling) 교육 등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구성되며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업스킬링(Upskilling) 교육은 데이터 전문가를 대상으로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최신 리딩 기술 활용을 위한 교육으로 7월 1일(월)부터 모집 중이며, 7월 17일(수)부터 총 3개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7월 17일(수) 진행될 교육 주제는 'Open API를 활용한 LLM 서비스 개발'로 선착순 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리스킬링(Reskilling) 교육은 지역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한 후 7월 집중 홍보 후 각 과정별로 순차 모집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빅데이터 분석 과제 기획과정, 분석 스킬 교육과정, 프로젝트 실습과정 등 3개 과정으로 구성된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진행된다.

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빅데이터활용센터 홈페이지(www.dipbigdat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은백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빅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 경쟁력은 곧 시장에서의 생존력이다"라며, "대구시는 앞으로도 지역의 산업에 특화된 데이터 전문 인력을 양성해 지역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라오스 어린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다.(사진=칠곡군 제공)

달성군, 시민과 함께 문화 만든다... 다양한 문화 체험 제공

시민 참여형 파크 오페라, 제작발표회
'사문진-피아노, 그 첫 번째 이야기'



달성문화재단 달성문화도시센터는 국내 최초 피아노 유입지인 사문진 나루터를 배경으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파크 오페라 '사문진-피아노, 그 첫 번째 이야기' 제작 발표회를 오는 12일 그랜드호텔 프라자홀에서 개최한다.

달성군은 피아노와 관련된 달성군의 이야기를 문화예술로 풀어내며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행사로 '달성 100대 피아노'가 있다.

'달성 100대 피아노'는 사문진 야외공연장에서 10회에 걸쳐 개최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로컬 100'에도 선정된 바 있는 대표 행사 중 하나다.

군은 여기에 더해 피아노를 소재로 한 창작 오페라 '시민참여형 사문진-피아노,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다.

창작 오페라 '시민참여형 사문진-피아노,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시민과 함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문 예술인의 영역인 오페라 공연에 일반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지역민들에 문화를 향유할 뿐만 아니라 제작해 보는 경험을 선사하고자 한다.

내용은 밀려오는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1900년대 피아노 최초 유입지 사문진 나루터를 배경으로 픽션을 가미한 '사문진-피아노,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반가의 여식 하빈과 신분 차이 때문에 고백은 못 하고 속앓이를 하는 현풍의 사람 이야기와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거부하는 하빈의 아버지인 윤단산과 그에 반해 서양 음악의 상징인 피아노를 가져오려 하는 하빈과의 갈등이 주된 내용이다.

또, 주인공 옆에서 하빈과 현풍의 친구인 세천과 유가의 사랑을 키우는 이야기도 재미를 더한다.

오는 10월 5일에 공연되는 파크 오페라는 공연뿐만 아니라 '도시문화캠프'와 함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축제로 확대 운영될 계획으로 체험버스, 포토존, 전시존 등 다양한 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또 오페라 공연은 화원 동산 사문진 야외공연장에서 진행해 시민들이 보다 가까워서 오페라를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을 '파크 오페라'로 명명했다. 공연은 야외에서 돛자리를 펼쳐두고 관람할 수 있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오페라를 생생하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참여형 오페라를 위해 음악 대학을 졸업한 뒤 경력이 단절된 △성악인 △가곡 동호인 △평소 노래와 연기에 관심이 많은 시민 등 오페라를 꿈꾸고 희망하는 시민 참여자(주역, 조역)가 오디션에 참가했으며, 그 결과 지난 6월 최종적으로 15명의 시민들이 오페라 가수로 선발됐다.

조역은 김민하(세천 역), 박형은(유가 역), 장재균(사보담 역), 이현진(에피 역) 4명과 단역들로 구성됐다. 달성군립여성합창단과 전문 연주자, 시민들이 참여하는 오케스트라가 함께 한다.

주역에는 전문 예술인인 윤성희 소프라노(하빈 역), 테너 석정현(현풍 역), 바리톤 추장환(정보 역), 바리톤 정재훈(단산 역)이 시민들과 함께 출연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달성군이 법정문화도시 시가 되고 '100대 피아노 콘서트'가 문광부 주관 로컬 100'에 선정되는 등 우리 군이 문화의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번 창작 오페라 '사문진, 그 첫 번째 이야기'가 한국의 피아노 최초 유입지인 달성군의 또 다른 대표적 문화콘텐츠로 자리 잡길 희망한다. 많은 지역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제작발표회는 오는 12일 오전 11시에 그랜드호텔 프라자홀에서 주요 아리아 시연, 제작 및 출연진 인터뷰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여은 기자

군위군,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최종 선정

군위군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매년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 '우수' 등급을 받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 성공모델 확산과 공모자 포상을 위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군위군은 2017년 이래 8년 연속 균형발전사업 우수등급을 받았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시군역량강화사업(우수사례명: '주민이 스스로 그려가는, 군위(WB) 역량 UP!')을 우수사례로 제출, 지난 5월 서면평가와

현장조사 등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군위군 역량강화사업은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인적 자원 육성과 주민 주도의 통합지역개발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의 역량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점과 특히 역량 강화를 통해 주민 자립 능력을 키움과 동시에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받았다.

김진열군위군수는 "지역개발사업에서 주민의역량을키우는것은 가장중요한과제인만큼 없다"며 "앞으로도 주민주도 농촌개발사업의 지속을위해 주민들의역량강화와지방이영민마을들기사업을 군위군민의 차별화된 추진과 더불어,기타연계사업발굴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나갈다"고소감을밝혔다. 박재성 기자

수성구, '여름철 재난위기가구 안전망' 본격 가동

오는 9월 말까지 폭염·
폭우 대응 복지대책 추진



수성구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폭우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복지 분야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가 예상됨에 따라

라 폭염·폭우 대응을 통해 재난 위기가구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려는 조치이다.

지역 종합사회복지관과 재가노인복지센터, 구청 복지 담당 4개 부서가 함께 특별대책팀(T/F 팀)을 운영해 폭염·폭우특보 발표 시 재난 예방과 피해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노인·장애인 등 폭염위기가구 6500여 명과 반 지하·저지대에 거주하는 폭우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독거노인 1800여 가구에는 선풍기와 여름 이불 등 물품을 지원하고, 취약 환경에 놓인 200여 가구에는 냉방비와 여름용품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 주민 누구나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공설경로당, 복지관, 동 행정복지센터 등 실내 무더위

터 133개소를 운영한다.

아울러 재난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라 실질적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민과 독거노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해 위기상황을 철저히 대처하기로 했다.

수성구는 재난 취약 가구에 비상연락망, 대피 장소, 행동요령이 담긴 안내 문자를 사전 발송하는 한편, 매일 1회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피해가 발생하면 부서별, 개인별 임무에 따라 복구를 지원하고 피해를 본 주민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사후 관리할 계획이다.

주택 침수에 대비해 구역, 피해 유형에 따라 주민이 일시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총 35개소의 임시거주시설을 확보해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조미경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06년 7월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jnews@daum.net
발행인 김영숙	편집인 김성용	부사장 조여은	편집국장 김현석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사경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900	사회부 053-253-008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인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천우체국 예천군과 폐의약품 회수 업무협약

경북지방우정청 소속 예천우체국은 지난 4일 경북청 최초로 예천군청과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7월부터 예천우체국 직배원들이 예천군 관내 약국 등에 설치된 전

용수거함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해 지정된 장소(쓰레기소각장)로 배송한다. 현재 예천군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2021년 700kg에서 지난해 1100kg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건강에 대한 예천군민

들의 관심 증대와 폐의약품 처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예천군 환경관리과는 이번 협약을 통해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 오염 방지 및 오남용 사고 예방에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명주 기자

칠곡 엄마들... 해외 봉사 너무 멋지다

장난감으로 새마을운동 전파 라오스에 기부한 칠곡 엄마들

"장난감은 아이들에게 새마을운동입니다" 칠곡의 젊은 엄마들이 장난감을 통해 라오스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을 가난에서 구한 새마을 운동을 전파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칠곡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은 라오스 비엔티안 특별시 농사이 마을에 지난해 12월 100점에 이어 두 번째로 장난감 280점을 보냈다.

장난감은 7월 중순 농사이 마을에 도착 예정으로 칠곡지역 엄마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것이다.

군이 2020년부터 '새마을세계화사업'을 펼치고 있는 농사이 마을의 아이들을 응원한다.

라오스에 장난감을 보내게 된 것은 칠곡군 엄마들의 따뜻한 마음과 김명신(50) 칠곡군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장의 숨은 노력이 빛을 발한 결과다.

김 관장은 농사이 마을로 봉사활동을 다녀온 지인을 통해 현지 아이들이 처한 열악한 사정을 전해 듣게 됐다.

아이들을 위해 소리가 나지 않는 등진고장으로 인해 매년 폐기 처분되는 장난감을 고쳐 농사이 마을로 보냈다.

장난감을 받은 아이들은 처음에는 신기한 듯 멀뚱멀뚱 쳐다보지만, 본격적으로 사용

법을 터득하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빈 교실에 장난감을 모아두자 아이들은 잠자리도 짝이 나면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웃음꽃을 피워냈다.

김 관장은 장난감이 현지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으며 추가 지원 요청이 이어지자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장난감을 기부받기 시작했다.

도서관 회원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는 것은 물론 게시판에 통해 라오스 아이들이 처한 상황을 알리며 동참을 호소했다.

엄마들은 한 손에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또 다른 손에는 아이가 흠뻑 자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을 들고 도서관을 찾았다.

새마을재단은 이러한 사연을 접하자 지난달 25일 김 관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라오스는 물론 아프리카 아이들에게도 장난감을 보내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김 관장은 "따뜻한 관심과 배려로 장난감을 기부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장난감을 통해 아이들이 큰 꿈을 꾸고 더 큰 세상으로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새마을 운동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며 "때론 작은 발상의 전환이 큰 성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라오스에 보낸 장난감은 희망을 전한 값진 선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미경 기자



라오스 어린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다. (사진=칠곡군 제공)

계명문화대, "농촌지역 힐링 문화 만들어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형성 큰힘 보낸다



국제협력기술선교교과 '농촌지역 힐링 문화 만들기' 재능나눔 봉사활동 모습 (사진=계명문화대 제공)

계명문화대가 최근 '농촌지역 힐링 문화 만들기'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계명문화대 교목실과 국제협력기술선교교과가 주관하고 Life2.0사업 등의 지원을 통해 마련된 봉사활동은 지난달 25일에는 청녕군 동정마을, 6월 27일에는 함안군 산인교회에서 진행됐다.

양 일간 진행된 봉사활동에는 교목실 교직원, 국제협력기술선교교과 교수 및 성인학습자 40여명, 공연음악학부 성인학습자와 지역 산업체인사 10여명이 봉사단원으로 참여해 재능기부 및 노력봉사활동을 펼쳤다.

지난달 25일 청녕군 동정마을을 찾은 봉사단원들은 지역 교회인 미동교회를 중심으로 마을

시설 개보수 및 담배막 도색, 수제 빵 나눔, 헤어 커트 및 펌, 네일아트 봉사활동과 함께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장구 공연 등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27일에는 함안군 산인교회를 찾아 봉사단원 각자가 지니고 있는 재능과 평소 수업을 통해 습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나후된 시설을 새롭게 단장하고 담배막 도색과 교회 간판 설치는 물론이고 예배당 실내 바닥을 교체하는 등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을 펼쳤다.

계명문화대 국제협력기술선교교과 1·2학년 성인학습자가 주축으로 구성된 이번 재능나눔 봉사단은 자발적인 재정 및 물품 후원을 비롯해 재능기부로 봉사활동에 참여해 훈훈한 모습을 보였다.

사전 준비부터 마지막까지 헌신적으로 봉사에 임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성하 국제협력기술선교교과 학과장은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기술을 들고 지역과 국제사회를 섬기는 전문적인 선교인을 양성하는 학과의 비전을 실현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학과를 넘어 대학 구성원, 지역교회와 산업체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 형성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성용 기자

'2023 제안제도 운영 평가' 상주·예천 최우수

우수상 구미·의성군 장려상 경산·영천시 봉화·고령군 차지...



사진은 지난 5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3년 제안제도 평가 우수 시군 시상식 모습.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주관한 '2023년도 제안제도 운영 평가'에서 상주시와 예천군이 최우수 시군으로 뽑혔다.

도는 지난 5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이 평가 우수 시군 시상식을 가졌다.

올해 14번째인 이 평가에서 최우수상은 상주시와 예천군, 우수상은 구미시와 의성군, 장려상은 경산시, 영천시, 봉화군, 고령군이 차지했다.

상주시는 정책자문위원회와 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해 정책 제안분야 전문성을 높이고, '미래상주 희망연구팀' 운영으로 업무자동화(RPA)를 구축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정책제안 활동을 지원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예천군은 신규 공무원들이 주축이 된 '혁신 주니어보드'를 운영해 '예천 사랑 주민증 발급' 제안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민 참여 포인트제를 시행해 정책 참여 기회를 높이고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도민과 공무원의 참신한 제안 아이디어는 도정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라며 "채택되지 못한 제안도 관심을 두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경북교육청, 2024년 전국기능경기대회 시설 준비 착착!

학교시설 공사 집행 대행 전국기능대회 시설 완료

경북교육청은 2024 경북도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앞두고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바이오실습동 진입로 포장과 배수로 설치 공사를 집행대행을 통해 완료했다.

경북교육청은 학교 배정 사업 중 사업비가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설계도서 검토와 시설공사에 대한 집행대행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 배정 사업지원은 △공사 집행 전에 설계

도서 전반에 대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 유도 △학교 자체 시설 공사 집행에 있어 전문성 부족으로 기술직 공무원의 역할 강화 △학교 시설공사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 △실질적인 참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설계 인력풀 지원을 목표로 한다.

집행 대행은 여름철에 진행되는 전국기능대회 일정을 고려하여 150m 배수로를 기능경기장 측면에 마련한다.

3600㎡를 추가 포장해 농기계운전지계차 운전·굴착기운전 기능대회장 부지를 확보하여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추진했다.

2024 경상북도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새달 24~30일까지 7일간 구미에 있는 금오공고와 신라공고(경주), 한국생명과학고(안동), 포항제철고, 구미전시컨벤션센터, 박정희체육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 등 총 7개 경기장에서 7개 분과 50개 직종으로 나눠 진행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사업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시설 집행이 어려운 경우 기술직 역량을 최대한 발휘, 교육 환경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안동시, 생강 뿌리썩음병 관리 철저 당부

장마철 생강 뿌리썩음병 우려 물고임 막고 방제약 살포 해야



사진은 생강 뿌리썩음병 (사진=안동시 제공)

안동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장마기를 맞아 생강 뿌리 부패 관련 병 발생 및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방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생강 뿌리썩음병은 지하 줄기 및 근경이 병원균에 의해 물이 스며들 것 같은 모습으로 썩으

며, 지상부 잎이 노랗게 변하는 것이 대표 증상이다.

병이 진행되면서 지하부 썩음이 지상부 전체로 확대돼 잎이 황갈색으로 변하게 된다.

생강 생육초기 지상부 아랫잎이 노랗게 변색하는 것이 생강 뿌리썩음병 진단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생강 뿌리썩음병은 지온이 높고 물빠짐이 나쁜 포장에서 발생하기 쉽다.

뿌리썩음병 병원균인 피시움(곰팡이균)은 유주자(편모를 가진 포자)를 형성해 물을 따라 이동하는 특성이 있다.

대부분 지표면과 접한 부분을 통해 침입한다.

연작지의 경우 지난해 발병했던 밭에서 토양속 병원균으로부터 감염되기에 종강선별과 종강소독을 실시하고, 연작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주시의회, 'APEC 지원 특위' 등 후반기 원 구성 완료

경주시의회는 5일 제2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폐회했다.

내년 개최될 '2025 APEC 정상회의'를 지원할 특위를 비롯해 4개 위원회별로 9명을 각각 선임했다.

예산결산특위는 위원장에 최영기·부위원장 김향규,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위는 위원장에 오상도·부위원장 정성룡 의원이 결정됐다.

윤리특위는 주동열 위원장과 정영기 부위원장, APEC 특위는 이락우 위원장과 정희택 부위원장이 각각 선정됐다. 경주시의회는 이날 황성공원 충혼탑에서 참배 후, 후반기 의정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윤용한 기자

포항 생리지 일대 농수로 천수공간 탈바꿈

각종 쓰레기 악취 진동 수년간 생활 민원 지속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리지 일대의 농수로가 시민들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천수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이 지역 농수로는 하수도와 농업용 배수로 기능을 함께하고 있어 수년간 각종 쓰레기와 악취 등으로 주거 생활 민원이 지속돼 왔던 곳이다.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은 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2021년 5월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와 사전 협의 등을 시작해 같은 해 6월 1차 주민설명회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2021년 12월 2차 주민설명회를 거쳐 2022년 6월 '연일읍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연계해 본 공사에 착공에 들어갔다.

현재 기반 시설과 교목류 식재 등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7월까지 수목 식재와 편의·안전 시설을 완료해 임시 개방을 통한 시험 운영 기간을 거쳐 9월 조기 준공한다.

생리지 생태수로의 연장은 약 1km로 스키존수로 준설 △사면 정비 △산책로 정비 △스텝 설치 △각종 수목을 식재한다.

단절된 5개의 구간과 행정간 산책로를 목교와 횡단보도 등으로 동선을 연결해 행정간과 연계한 천수공간을 조성 중이다. 정창명 기자

경주시, “주말 오후도 육아 함께해요!”

경주시 행복드림공동육아나눔터가 주말 이용시간을 확대한다. 운영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오후 4시까지다.

앞서 행복드림공동육아나눔터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2시간 만 운영됐다. 시는 이용자 증가 추이에 따라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활용한 인력 마련과 다른 공동육아나눔터 주말 운영도 넓힌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 키우기 좋은 경주’를 실현하기 위해 경주시가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 지역주민의 행복한 육아 공간이다.



영원한 자유인 김성학, 고향 경주 장학금 기탁

공직자 ‘첫’ 발 내 딛은 고향 경주...조금이나마 도움 되길 바라는 마음 지역 인재 장학금 기탁

김성학(사진·59) 경주시 전 부시장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경주시장학회에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앞서 김 전 부시장은 지난달 28일 퇴임식을 끝으로 36년 간의 공직생활을 끝으로 영원한 자유인이 됐다.

김 전 부시장은 “고향이자 공직자로서 첫 발을 디딘 경주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

라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전 부시장은 1988년 공직에 입문, 경북도 정책기획관실 기획조정담당, 혁신법무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 정책기획관, 미래전략기획담당, 경주엑스포대공원 사무처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지난해 1월부터는 경주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겨 환경부 낙동강수계 특별지원사업 공모 선정, 국가하천 형산강 하천 환경정비사업 추진 등 경주의 백년대계를 설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오랜 공직 생활 동안 성실함을 바탕으로 경주시 성장에 기여한 김성학 전 부시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기탁한 장학금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인재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주거환경개선 이웃사랑 실천... 피서철 환경정비

산내면, 집수리 봉사활동 경주행정동우회, 피서철 대대적 환경정화 구슬땀

경주시 산내면 새마을남녀협의회는 주거환경개선 지원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한다.

경주시 행정동우회는 피서철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나정고운모래해변 환경정비를 했다.

산내면 사랑의 집수리

경주시 산내면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는 지난 3일 내일2리 주거취약 가정을 방문, 사람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했다.

회원들은 33도의 초여름 무더운 날씨와 높은 습도에 구슬땀을 흘리며, 낡고 오염된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고 오래 묵은 먼지와 찌든 때를 청소하는 등 해당 가정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전했다.

조민석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은 “더운 날씨에도 우리 이웃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땀 흘릴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살피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박진우 산내면장은 “더운 날씨와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고생한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산내면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람의 집수리 봉사활동, 환경정화 활동 등 다방면으로 이웃사랑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경주시 행정동우회 환경정비

경주행정동우회는 지난달 25일 갑포읍 나정고운모래해변 일대에서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

행정동우회원 40여 명과 갑포읍 직원 12명 등 50여 명이 참가해 오는 12일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나정고운모래해변 일대에서 쓰레기 수거와 자연보호 활동 계몽운동을 했다.

나정고운모래해변은 뛰어난 해변 풍경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수욕장과 오토캠핑장 운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다.

여름 무더운 날씨에도 회원들은 자연보호 홍보 현수막 준비 및 어깨띠 등을 착용, 배사장 및 공중화장실 부근 등 나정고운모래해변 구석구석에 방치돼 있는 생활쓰레기 등을 말끔히 정비하는 등 보람 있는 구슬땀을 흘렸다.

김정택 회장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해수욕장 일대 환경정비를 통해 경주를 찾는 많은 피서객과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다를 선물하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김민대 갑포읍장은 “매년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있지 않고 갑포 해안을 깨끗이 정비해준데 대해 감사하며, 읍에서도 수시로 순찰, 항상 맑고 깨끗한 바다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경주·포항·울산 평생교육 중심 도시 우뚝

제6회 해오름동맹 평생교육 관계자 상생 공동연수 성황

경주시는 ‘제6회 해오름동맹 평생교육 관계자 상생 공동연수’를 지난 3일 경주엑스포대공원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해동현답! 해오름동맹 현장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은 포항, 울산, 경주 3개 도시의 평생교육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공동연수는 먼저 경주엑스포대공원에서 ‘인피니티 플라잉’ 공연 관람으로 첫 장을 열며 도시 간 교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지역 평생교육 활

성화를 위한 변화와 준비’를 주제로 지역사회에서 평생교육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각 도시의 평생교육 우수 사례 발표와 토론 세션이 펼쳐지며, 3개 도시의 대표자들은 각자의 도시에서 진행된 혁신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 이후에는 참가자들 간의 열띤 토론이 이어져 상호 협력의 가능성을 꾀하는 시간도 가졌다.

공동연수는 지역 탐방과 실질적인 정보 교류를 통해 3개 도시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등 평생학습도시로서의 핵심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도 마련했다.

시는 공동연수로 평생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각 도시의 경험과 비법 공유로 지



제6회 해오름동맹 평생교육 관계자들이 상생 공동연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송호준 경주시 부시장은 “공동연수로 해오름동맹 도시 간의 평생교육 협력과 연대가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도시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협력 방안을 찾는다”고 강조했다.

어반스케치 문화 활동... 주민공동체 활성화

경주시, 도시재생 주민제안 사업인 ‘황촌을 그리다’ 개강

경주시가 지난 1일 황촌마을활력소에서 도시재생 주민 제안 공모사업으로 어반스케치 강좌인 ‘황촌을 그리다’를 개강했다.

‘황촌을 그리다’는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20여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총 16회의 어반스케치 강좌를 진행한다.

올해로 3회째인 황촌마을의 어반스케치 강

좌는 기초 선 연습을 시작으로 투시 기법과 색의 이해까지 중급 과정의 표현기법을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됐다.

강강 후에는 주민들이 직접 그림 작품으로 전시회를 연다.

이문자 주민공동체 ‘황촌을 그리다’의 대표는 “3년 동안 행복황촌에서 황촌마을의 풍경을 그림으로 담아내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경주의 숨은 매력을 알리는 홍보 효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그는 “2021년 경주시가 세계 어반스케치 공식도시로 선정된 후 강좌에 참여한 수강생들이 어반스케치 페스티벌의 주역으로 참여하는



어반스케치 강좌인 ‘황촌을 그리다’ 개강식 참석자들이 지난 1일 교육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등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어 보람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문자 철도도심재생과장은 “어반스케치라는 문화 활동을 통해 주민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관광객 유입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생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주민 공모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주시, ‘경주 이사금쌀’ 공급 확대 총력전

경주외국인계절근로자고용협의회와 고품질 경주쌀 되도록 많이 구매 쌀 소비 확대 이바지...의지 다져



지난 4일 경주시 농업인회관에서 경주시 농업유통과-경주시 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경주시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협의회 등 3개 기관이 쌀 소비촉진을 위해 협력한다.

경주시 농업유통과, 경주시 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 경주시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협의회 등 3개 기관이 쌀 소비촉진을 위해 협력한다.

시는 경주시 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 경주시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협의회와 함께 쌀 소비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4일 경주시 농업인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은 이경숙 경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공중태 경주시 농업유통과장, 이광은 경주시 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 대표, 금삼호 경주시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협의회 대표가 참석

했다. 협약은 쌀 소비 감소와 급격히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민들의 안정적인 판로 마련과 ‘2025 경주 APEC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마련됐다.

윤용찬 기자/사진 경주시제공

김태우, ‘축산기술전문지도사’ 선정 영예

김태우, 발로 뛰는 농촌지도사업 농가소득 증대 기여하는데 한몫

김태우(사진) 경주농업기술센터 축산기술팀장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주관 ‘축산기술 전문지도사’로 선정됐다.

‘축산기술 전문지도사’는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축산 기술 보급 업무를 담당하며, 전문 지식과 업무 역량을 발휘해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증제도다.

‘축산기술 전문지도사’ 선발은 이번이 처음

으로 전국에서 단 4명만 선발된 만큼, 축산 분야 ‘최고’ 공무원만 받을 수 있는 인증제도로 알려져 있다. 김태우는 축산기술사 등 관련분야 전문 자격증 4개를 보유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 현장 중심의 농가 컨설팅을 추진, 국내 최초 한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획득하는 등 축산 기술 보급에 뛰어난 성과를 이뤄냈다.

국내 최초로 열풍 이용 건조생산 시스템을 도입, 축사 냄새 저감 표준모델 개발, 초유는 행 및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등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보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태우는 2012년부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품목실습 전문 교수로 활동해 전국 지자체와 대학, 농협에 출강하는 등 신기술 보급 전수에 노력하고 있다.

그는 “축산 기술 보급 업무에 종사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보람된 순간이 더 많았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더 발로 뛰는 농촌지도사업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축산기술 전문지도사’는 국립축산과학원의 각종 축산분야 시범사업, 실증연구 등 평가위원으로 참여, 선진축산 및 해외사례 기술 습득, 전문기술 강의, 우수사례 발표 등 대내외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경산 김천 상주 문경 칠곡 예천



아빠와 아이가 함께 베이킹 체험

경산시가족센터는 오는 24일까 지 경산지역 5~6세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빠랑 아이랑 쿡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녀와 함께하는 베이킹 체험을 제공해 남성 양육자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는 한편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정유희 경산시가족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버지들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돕고 자녀와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경산시가족센터는 아버지 역할 교육 및 자녀와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 센터 누리집과 경산시가족센터(053-819-5500)로 확인할 수 있다.



김천, 닭백숙 나눔 행사

바르게살기운동 김천시지좌동 위원회는 지난 4일 지좌동 갈대경로당을 방문해 닭백숙 나눔 봉사 활동을 했다. 바르게살기운동 위원들은 아침 일찍 갈대경로당에 모여 재료를 다듬고 손수 음식을 준비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하여 닭백숙과 더불어 시원한 수박을 대접했다. 문복남 바르게살기운동 지좌동 위원회장은 "마을 어르신들 건강히 여름 보내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배정화 지좌동장은 "앞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며 따뜻한 지좌동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상주여고총동창회 저출생 성금 기탁

상주여고총동창회는 지난 4일 상주시청을 방문해 저출생극복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지난날 22일 열린 상주여고총동창회 제20차 정기총회에서 학교발전기금 200만원을 오수정 교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상주여고 총동창회는 2년에 한번 개최되며, 매회 선배들의 철순잔치를 개최하는 등 의미있는 동창회로 친목을 꾀하고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동창회에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성금을 기탁해 줘서 뜻깊게 생각한다. 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적 어려움... 아이들 꿈 희망 잃지 말아요

문경시, 재능·꿈·기회 지원 위기가정 지원 방안 마련

문경시 희망복지팀은 다문화 가정과 가정위탁 아동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행정력을 모은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점촌1·3동, 동로면 다문화 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4명)에게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비용(공부방 포함, 1550만원)을 전했다.

아이리더 인재 양성 지원사업 체육(년 1000만원 정구/대학교 졸업), IBK기업은행 디디다(학습비, 월 62만5000원 3년)사업, 초록우산 학습비(192만원 2명/1년)를 신청, 선정했다. 대상 가구 아동들은 저소득계층으로 주택 내·외부는 건강 및 안전·공부방 개선 문제, 체육 분야에 재능이 있지만 금전적인 문제, 학업에 소질이 있지만 학원에 다닐 수 없는 경제적인 문제로 도움이 절실했다.

지난 5일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선정된 '초능력 가득한 집' 주거개선 및 공부방과 컴퓨터를 지원받는 가정에 방문,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어린이재단 경북지역본부, 초록우산 문경후원회, 문경시의회, 사회복지과, 동로면행정복지센터, 수평2리 등방문, 전달식을 가졌다. 아동의 가족들은 공부방 개선 및 컴퓨터 지원, 주택 내·외부가 깨끗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 "생활에 활력을 찾았다. 고맙다"고 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북지역본부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아동들이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윤 사회복지과장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꿈과 희망,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도움을 주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감사하다. 도움이 필요한 문경시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김동수 기자



김천시, 가루쌀(바로미2) 재배 본격화

생산 면적 확대 통해 농가 소득증대 한 몫

김천시는 올해 30ha(1개소) 규모로 가루쌀 재배를 시작한다. 가루쌀은 쌀알 구조가 성글고 물러 쌀가루 제조가 쉽고, 밀가루 대체용으로 사용될 수 있어 밀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가루쌀 적정 이앙시기는 7월 초순으로 늦게 이앙할



수확수발아발생이 최소화되고 생산량이 증대된다. 일반벼에 비해 늦은 이앙으로 동계작물과의 이

모작에 쉽다. 또한 일반벼에 비해 생육기간이 짧아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다. 가루쌀을 재배하면 전락작물 직불금 200만원/ha, 동계작물과 이모작을 하면 인센티브 포함 150만원/ha, 가루쌀재배장려금 100만원/ha를 포함하면 최대 450만원/ha가 지급된다. 김영택 김천시 농업정책과장은 "가루쌀로 밀가루 일부를 대체하여 밀자급률 향상 및 쌀수급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생산면적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한 몫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경산시의회, 제9대 후반기 힘찬 출발

경산시의회는 지난 5일 본회의장에서 제9대 시의회 후반기 개원식을 갖고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날 열린 개원식에는 조원일 경산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언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개원사, 기념 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안문길 의장은 개원사에서 "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반기 의장단이 보여준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발판 삼아 후반기에도 집행부와 상호 존중하며 28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위보다는 할 일에, 권한보다는 책임에 더 집중, 말이 아닌 실천과 결과로 증명하는 의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원식에 앞서 후반기 의장단은 첫 공식 일정으로 총헌담을 찾아 헌화·참배를 통해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오로지 경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조미경 기자

상주시, 19억 2,500만 원 예산 절감

예산 절감 부실방지 균형있게 맞춰 간다

상주시가 19억 2500만 원(3.40%)의 예산을 절감했다. 시는 2024 상반기 계약원가심사제도를 활용, 총 108건 566억 7800만원을 심사, 이같은 예산을 절감했다.

분야별로는 공사 60건 13억 6200만원, 용역 27건 5억 5600만원, 물품 21건 7000만원을 각각 절감했다. 계약원가심사제도는 발주부서에서 산출한 각종 공사·용역·물품 등의 내역에 대해 거래실례가 적고, 현장 확인 및 새로운 공법 도입 등을 통해 계약심사부서에서 적정 원가를 산출했는지 등을 심사한다. 시는 2024년부터 공사 2억 원, 용역 7000만 원,

물품은 2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계약원가심사제도를 개정해 운영하고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계약원가심사 운영을 목표에 대한 기계적인 심사보다는 시설물의 목적·성질·규모와 공사현장의 특수성 및 안전성 등을 적극 고려하고 최종 목적물에 대한 시민들의 쾌적한 사용을 위해 예산절감과 부실방지를 균형있게 맞춰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

예천 김홍익 농가, 2년 연속 '보증씨수소 선발'

우수한 예천한우 생산 미래축산 기틀을 마련



예천군 김홍익 농가의 (백산한우농장) 한우 1두가 농촌진흥청 가축개발협의회 유전능력평가에서 보증씨수소(KPN1625)로 선발됐다. 김홍익 농가는 2023년 KPN1527이 보증씨수소로 선발된 데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영예를 안았으며 후보씨수소 1마리가 보증씨수소 선발을 앞두고 있어 추가선발이 기대되고 있다. 보증씨수소는 능력검정(당대검정, 후대검정)을 통해 유전적으로 우수한 씨수소로 선발된 소이며, 이때 선발한 씨수소로부터 인공수정용 정액을 생산·공급해, 한우 개량에 이바지하고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 예천군 관계자는 "보증씨수소 선발은 농가의 한우 사양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노력을 통해 얻어낸 결과다. 축산농가와 힘을 합쳐 청정축산을 기반으로 우수한 예천한우를 생산하고 미래축산의 기틀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송명주 기자

이창훈 칠곡군의원 큰 상 받았다



이창훈(사진) 칠곡군 의원이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지방의정 봉사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지방의원으로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수여한다. 재선인 이창훈 군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민생 현장 곳곳을 발로 뛰며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왔다. 그는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 확대 촉구', '축산농가 악취저감 해결방안 제시' 등 다양한 5분 발언으로 지역과 군민에게 필요한 정책 제언을 하기도 했다. 이 군의원은 "소임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행복을 위해 헌신의 힘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조미경 기자

피서는 예천 패밀리파크 캠핑장으로 오세요~



예천군은 경북도청 신도시 패밀리파크 캠핑장(호명읍 산합리 84-3 일대)을 개장, 운영한다. 패밀리파크 캠핑장은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이색적인 매력의 캠핑 공간으로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 글램핑 3동, 캠핑사이트 17곳, 바비큐파고라 8동과 취사장, 음수대,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다. 캠핑장을 비롯해 대형 물놀이장과 성인풀장, 유아풀장, 농구장, 풋살장, 파크골프장, 다목적 잔디광장 등이 함께 조성돼 있어 어린이부터 청소년, 성인까지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가족 친화 공간이다. 7월 이용 고객들은 한시적으로 전화(010-8008-9648) 예약을 받고 있다. 8월 이후 이용 고객들은 8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송명주 기자

영덕 영양
청송 청도
울릉 울진



우리쌀로 만드는
달콤한 디저트 어떠세요?

청송군은 청송군 사과공기원 센터에서 지난달 25~29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청송군민 60명을 대상으로 우리쌀을 활용한 다양한 디저트 교육을 추진한다.

교육은 지난 6월 초 교육생을 모집하였고 총 3회의 수업 중 인당 최대 2회 교육을 수강할 수 있게 구성했다.

교육생들은 우리쌀 우유푸딩을 시작으로 우리쌀 강정, 우리쌀 짬 카스테라를 만드는 수업을 차례대로 받는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군민들이 우리쌀을 더욱 많이 소비하게 되고 우리쌀을 색다른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 경험과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효태,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

김효태 청도군의원이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의정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헌신, 지역사회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김 군의원은 제9대 청도군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재선의원으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효태 전 의장은 "이 상은 청도군의원 모두가 이루어 낸 의정활동 결과물이다. 후반기에도 다 함께 화합과 소통으로 더욱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청도 농산물 직거래 판매

청도군 각북면은 자매결연 도시 대구시 중구 동인동을 방문, 농산물 판매 및 농촌일손돕기에도 협력한다.

지난 1일 양파 10kg 80자루, 5kg 60자루 농산물 직거래 1차 행사를 했다.

각북면장 및 새마을 3단체 회장 단과 함께 동인동으로 품질 좋은 농산물을 배달해 중구 주민들에게 판매했다.

김광열, 新 농자천하지대본... 100년 기틀 마련

웰니스 중심 농업경쟁력 강화 청년·여성·귀농인 지원정책 등 세부적인 중장기 정책 마련...

김광열 영덕군수가 농업발전 장기 계획을 수립, 농업발전 100년 기틀 마련한다는 밑그림을 그린다.

농업이 생명·영생·완충산업으로 미래 인류를 구제할 수 있는 신성장산업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탓이다.

무엇보다 농촌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는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난이다. 외국인 노동자를 해마다 농촌들밖에 투입하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급선무다.

때문에 김 군수는 생산성이 낮은 전통·관행적 농업을 극복, 농업이 산업의 근본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新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地大本) 발전 계획을 마련한다.

이른바 영덕 농업 100년 기틀이다.

■역량강화 공동연수 개최

(사)영덕군 농업회의소는 지역 농업의 발전 방안을 찾고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일 영덕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동연수를 가졌다. 농업회의소 회원 80여 명이 참석했다.

공동연수는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명사 특강, 김광열 영덕군수와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으로 이뤄졌다.

김 전 장관은 치유산업과 농정 대전환을 주제로 치유농업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생활 향상 등 농산업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김 군수는 회의소 회원과 지역 농업 전반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주고받는 소통의 과정을 통해 웰니스 중심의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농촌 인력지원, 청년·여성·귀농인 지원정책 등 세부적인 정책 계획을 논의했다.

이원용 농업회의소 회장은 "차별한 내부 역량강화로 지역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바를 도출하고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드론·벼 병해충 공동방제 시행

군은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가의 고품질 벼 생산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달 10일까지 드론을 활용한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한다.

공동방제는 병해충 밀도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내 약 2155ha의 벼 재배 전 필지에 읍면별 벼 생육 시기에 맞춰 오는 21일까지 시행하고 벼 출수 전인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또한번 방제한다.

앞서 군은 지난 4월 1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종자소독제와 육묘상처리제 등을 지원, 여름철 벼 병해충 공동방제의 준비를 완료한 바 있다.

강민호 농업기술과장은 "방제 활동은 한낮 더위를 피해 오전 일찍 또는 오후 늦게 시행한다.

공동방제 시 양봉농가는 벌통에 피해가 없도록 잘 관리하고 가정에선 장독대와 창문을 잘 단아 두는 방제 약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 과장은 "벼 재배 농가가 본인 재배 필지에서 공동방제 시 현장 참관 및 공동방제 기간 외 병해충이 발견되면 공동방제에 의존하지 말고 농가 개별 방제를 시행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광열 영덕군수가 지난 3일 영덕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역량강화 공동연수에서 농업발전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영덕군제공)

■농업인 한마음 한뜻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영덕연합회와 한국여성농업인 영덕연합회가 지난 4일 영덕문화체육센터에서 '제3회 한농연·한여농 한마음 가족체육대회를 가졌다.

대회엔 김광열 영덕군수, 김성호 영덕군의회 의장, 황제철 경북도의원, 송종만 한농연 경북도연합회장, 김은주 한여농 경북도연합회장 등 내빈과 회

원 50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개회식, 우수회원 시상, 읍·면별 체육 경기, 장기 자랑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신정대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역 농업을 이끌어 가는 모든 농업인이 참석한 만큼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지역 농업의 발전을 꾀하고 회원과 가족분들이 잠시나마 교류와 화합의 자리를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여은 기자

수소중심 도시 울진 넘어 부자 농업·농촌 건설

울진농업 대전환 농업 미래 열다...

'제24회 울진농업인한마음대회'가 막 내렸다.

대회는 지난 3일 울진군 북면 흥부생활체육공원에서 열렸다.

행사에 700여 명의 농업인과 손병복 울진군수, 김정희 울진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김재준 경북도의원과 관내 농업 관련 기관 단체장이 참석했다.

'울진농업대전환! 농업의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우수회원 표창, 화합행사, 농업대전환 성과 홍보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다.

무엇보다 함께한 농업인 상호 간의 화합과 정보

교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대회에 경품으로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울진연합회와 한우육종농가인 백안농장 김동규 대표가 각각 우량 송아지 1마리씩 기증, 함께한 농업인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황현 울진4-H연합회 부회장은 대회사에서 "농촌 고령화와 저출생 등 농촌이 맞닥뜨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도시 청년보다 잘 살 수 있는 성공 모델을 울진농업대전환으로 농업인의 손으로 이루어 나가자"라고 다짐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격려사에서 "평해읍 월송들 일대 이모작 재배단지를 운영, 노동력 절감 및 소득향상, 무인헬기 공동방제, 표고버섯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 지난 1년간 농업대전환을 통해 울진 농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성과를 보여 줬다"라고 말했다.



손병복 울진군수가 지난 3일 북면 흥부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린 제24회 울진농업인한마음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울진군 제공)

농업인한마음대회는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있는 농업 관련 4개 단체인 한국농촌지도자울진군연합회, 사)한농연울진군연합회, 한국생활개선울진군연합회, 울진군4-H연합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경수 기자

지자체 피서철 관광객유치... 사고예방 총력대응

청송군, 물놀이 사고 막아라 영덕군, 관광객 유치 총매진 영양군, '집중호우' 전력투구 울진군, 시설물 점검 안전감

일선지자체가 피서철 관광객유치와 각종 사고 예방에 여념이 없다. 여름철 장마 등 집중호우기를 맞아 민관합동으로 총력대응에 나선다.

■청송군, 물놀이 사고를 막아라

청송군은 여름 피서철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8월 31일까지 물놀이 안전지킴이 14명을 배치 운영한다.

군은 행락철 강과 하천 등을 찾은 피서객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7곳(월막하천, 청운하천, 마평교, 얼음골, 방호정, 지소하천, 고와하천)에 각 2명씩 물놀이 안전지킴이를 배치했다.

안전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순찰과 예방활동을 하는 등 물놀이 이용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사고 취약지역에 대한 물놀이 위험안내표지판 및 인명구조 물품 정비, 지속적인 안전문화 계몽운동 및 각종 사고 예방교육을 한다.

■영덕군, 관광객 유치 올인

군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고래불국민아영장에서 6일부터 새달 18일까지 2개월간 웰니스 주말상설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래불국민아영장은 영덕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다. 고래불해수욕장의 넓은 백사장에 펼쳐진 공립 야영장으로, 카라반 25개, 숲속야영장 110곳, 오토캠핑장 13곳, 펜션 4실의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군은 고래불국민아영장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보답하고 다양한 체험과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웰니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한방 체험 △독일 크나이프(물속 걷기, 해변 맨발 걷기) △자연치유 △기공·요가 △문화공연 등이 있다.

매주 토요일 오후 3~6시, 그리고 일요일 오전 10

시~12시 시간별로 각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웰니스 주말 상설프로그램은 고래불국민아영장 웰니스 체험존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래불국민아영장 누리집(stay.yd.go.kr) 또는 영덕문화관광재단 웰니스관광사업본부(054-730-7885~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양군, 집중호우 총력대응

영양군은 여름철 장마 등 집중호우기를 맞아 군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전력을 다한다.

지난 5월 30일 마을 지리와 환경에 밝은 이장 115명, 자율방재단 146명, 의용소방대 57명, 자율방범대 54명, 공무원 195명을 포함한 마을순찰대를 구성했다. 예측불가능한 극한호우 및 취약시간대에 발생하는 재해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6월에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산사태 취약지역 및 피해 예측구역을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마쳤다.

군은 집중호우로 인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자연재해 위험에 적극 대응한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을순찰대 활동을 강화, 주민 위험발생시 행동요령과 대피체계에 지속 홍보한다. 군은 군민들은 재난 발생시 행동요령에 따라 대피,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 당부했다.



■울진군, 안내시설물 점검

울진군은 8~19일까지 주소정보(주소정보는 식별과 위치파악을 목적으로 객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구조화된 정보)안내시설물을 점검한다.

여름철 기상이변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낙하 및 파손에 따른 2차 안전사고를 사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점검 대상은 약 116곳이다.

태풍 또는 국지성호우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해안도로 및 주민 밀집지역의 주소정보 안내시설물로 낙하 위험, 시설물 결속상태 등을 점검한다. 각종 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은 보수·교체한다.

조여은 기자
이경수 기자
권윤동 기자
윤병문 기자

영천 영주
봉화 의성
고령 성주



봉화군, 道 제안제도
11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봉화군은 지난 5일 경북도에서 주관한 2023년 시군 제안제도 운영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2014년부터 11년 연속 제안제도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제안제도는 국민 참여정치 및 행정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제도로, 경북도는 제안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매년 제안제도 운영 평가를 실시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봉화군은 지난해 국민 제안공모전 '함께 꿈꾸는 봉화'를 비롯한 공무원 제안공모전 '함께 그리는 봉화', 군정 현안 시책 공모전 '싱크탱크(Think-tank) 톡! 톡!' 등을 개최해 총 336건의 다양한 제안을 접수해 군정에 반영했다.

특히 '폐기물 배출 논스톱 제도'의 시행은 배출자가 매립장에서 바로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읍면사무소를 거처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어줘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의 제안 하나하나가 '봉화군 발전'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한 씨앗이라 여기고, 소중히 씨를 틔워 키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고령소방서, 소방행정자문단
신임단원 위촉식 및 정기회의

고령소방서는 지난 5일 대회의실에서 소방행정자문단의 신임단원 위촉식과 함께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정기회의는 소방행정자문단원 29명, 소방서장 및 보직간부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신봉석 고령소방서장은 "저출생 극복에 자문단원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당부로 회의를 시작했다.

△신임단원 위촉패 수여 △고령소방서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업무계획 설명 △소방행정자문단 자체안전 및 운영에 관한 현안 논의 △안전한 고령군 만들기를 위한 지원·협력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새롭게 위촉된 김삼수 신임단원은 고령군 쌍림면체육회 수석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 발전에 다방면으로 헌신하고 있다.

그는 "소방조직의 발전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안건을 발굴하고, 소방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영주시, 필리핀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간담회...

박 시장과 가감없는 농가 의견 청취
박 시장 "일손 걱정 없는 영주 실현"

영주시는 지난 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장과 함께하는 계절근로자 고용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공약사항인 '농촌 인력난 해소'에 대한 영농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서다.

박남서 영주시장과 필리핀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업인 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계절근로자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농촌인력 분야 추진·운영 방향 소개와 이에 대한 의견 청취와 논의가 진행됐다.

시가 올해 상반기 유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업무협약을 통해 유치한 필리핀 로살레스시·마발라카시 209명,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 83명 등 총 292명이다.

하반기 입국 예정 근로자를 포함하면 500명이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는 2022년 108명, 지난해 414명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무단이탈은 2022년 36명, 지난해 1명, 올해는 현재까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성과가 지난해 첫 조직 개편에서 농촌인력 전담팀을 신설해 계절근로자 유치·관리를 전담해 왔고, 농촌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다각도의 검토를 통해 '영주시 맞춤형 농업인력 지원방안'을 수립해 추진해 온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올해 초 필리핀에서 근로자 대우 문제로 인력 송출을 금지하면서 전국 지자체가 타격을 입었을 때도 시는 지난해부터 직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무단을 꾸려 필리핀 현지에서 파견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하여 영농 적기에 인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날 간담회는 시간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현안에 대한 참석자들의 가감없는 의견이 제시됐다.

계절근로자 고용주들은 근로자의 임금, 근무시간, 휴일, 숙식 등 향후 전반적인 사업 운영에 대해서 논의하고 특히 신규 근로자의 낮은 농업숙련도 개선, 농기계 사용이 가능한 근로자 우대방안 등을 박남서 시장에게 건의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검토와 협의를 거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다"며, "해외지자체 협력 강화로 계절근로자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중개센터의 철저한 준비로 '일손 걱정 없는 영주'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8월 말부터 안정농협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중개센터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안정농협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농가는 단기로 인력을 신청해 쓸 수 있어 숙식을 직접 제공하면서 일정 기간 고용하는 기존 고용 방식보다 농가 부담이 덜하다.

이에 따라 영주시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은 풍기농협과 영주농협을 통한 국내 인력중개, 중부지역은 안정농협을 통한 국외인력을 중개·알선 받을 수 있는 권역별 농촌인력중개 운영체계가 마련돼 농촌인력난 해소와 함께 영농인건비 안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천시, 7월부터 다함께돌봄센터 급식·간식 무료 제공

"아동친화도시 영천을
만드는 데 더욱더 노력"

영천시는 이번 하반기부터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에 대한 급식비, 간식비를 전액 지원한다.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은 그동안 급·간식비를 자부담하고 있었기에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과 함께 양질의 돌봄서비스 수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영천시의 시비 지원을 통해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초·중·고(6세~12세)에게 학기 중에는 방과 후부터 오후 7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학습, 놀이,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정부의 인구전략기획부, 경북도의 저출생 극복 본부 부서 신설 등 범국가적인 추세에 맞춰 우리 영천시에서도 저출생 극복 및 아이 키우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영천을 만드는 데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천시는 2021년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 4개소를 운영 중이다. 올해 연말까지 완산동 어울림플랫폼에 5호점을 개소하는 등 2026년까지 다함께돌봄센터 총 7개소를 설립·운영할 예정이다.

성주 가천면 휴가철맞아 행락지 손님맞이 준비 완료

성주군 가천면은 본격적인 휴가(행락)철을 맞아 지난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성수기 행락지 관리에 들어갔다.

매년 5만여명 정도로 내방하고 있어 이미 기초질서 지도, 간이화장실 청소, 연도면 쓰레기 투기수거 인력을 확보해 운영중이다.

20여명 정도로 현장을 관리하는 인력이 상주하며 지난 6월 관련 교육을 실시했고 119의 협조를 받아 심폐소생술 등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훈련도 실시하고 현장에 투입했다.

가천교를 시작으로 포천계곡 일원 10여 km 구간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게 되며 취사 및 야영행위,

불법 내수면 어업, 하천변 평상 등 무단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이 실시되며 공무원도 휴일없이 현장관리에 들어간다.

편의시설로는 취사장 2곳과 수세식 화장실, 탈의실의 갖추었다. 취사장은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잡초 제거와 빗가림 포장, 수세식 화장실과 탈의실은 냉방기를 설치하고 운영 중이고 탈의실은 올해 처음 설치된 편의시설이다.

이호원 가천면장은 "내방객들에게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겠지만 덥고 습한 날씨에 지역에서 시원하고 쾌적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특히, 행락객의 안전을 위해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에게 수시교육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며 행락객의 주의를 관심 부탁드리며 즐거운 휴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주·구미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
'민관 네트워크 협력교류회' 개최

영주시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와 구미시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는 지난 5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 네트워크 협력 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민관 네트워크 협력 교류회는 관·관, 민·관, 민·민 협력 사안 논의를 통해 지역 간 및 지역별 사회적경제 조직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구미시 사회적기업인 ㈜인간과 공간에서 운영하는 마켓브레이즈에서 진행된 이날 교류회에는 영주시와 구미시의 사회적경제 담당에서도 참여해 업무 공유와 양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했다.

교류회는 △국내 사회적경제 흐름 및 전망 특강 △지역 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 논의 △영주시·구미시 사회적경제 교류 협력을 통한 상생협약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동식 구미시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장은 "영주와 구미의 상호협력력을 바탕으로 사회적기치 확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옥래 영주시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장은 "사회적기치 창출과 지역 발전을 앞장서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성군, 여름철 농업재해 사전 대응 총력

의성군은 올여름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과수원 및 시설하우스 등 45개소를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군은 여름철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업재해 취약시설 배수로 정비 및 시설보수(비닐 보수·교체, 노후 전기시설 교체 등) 상태를 점검 및 현장 지도 하였으며, 재해 대비 농작물 관리를 당부했다.

배는 줄기나 잎에 묻은 흙양금과 오물을 제거한 후 도열병, 원알마름병 등에 대비한 방제가 필요하며, 고추 등 노지 발작물의 경우는 요소 0.2% 액이나 제4종 복합비료를 5~7일 간격으로 2~3회 엽면 시비하여 생육을 촉진시켜야 한다.

과수의 경우에는 도양유실 시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조기에 흙을 채우고, 부러진 가지는 병원균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재 및 살균제를 뿌려주는 것이 좋다.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로 잡초 제거 등 배수시설을 정비해 물 빠짐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김주수의성군수는 "올여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이 높아 예년보다 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현장점검 및 재해예방시설 지원 등을 통해 농작물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령군, 2024년 광견병
국가백신 1차 접종 실시

고령군은 8일부터 8월 30일까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된 개체 937두를 대상으로 2024년 광견병 국가백신 1차 접종을 실시한다.

실시 방법은 1차 광견병 국가백신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을 마친 개체에 한해 실시하고 미등록 개체는 동물등록 후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 연령은 생후 3개월 이상이며 접종 간격은 연 1회이고 견주 부담비용은 마리당 오전원이다.

광견병은 광견병바이러스를 보유한 너구리 등의 야생동물과 접촉한 개, 고양이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전파가 가능한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물린 상처를 통해 신경을 타고 중추신경까지 올라가 발병한다.

시술 동물병원원은 라파동물병원, 대가야동물병원 2개소이며 기간 내 선착순 접종으로 약품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을 밝혔다.

봉화군 석포 진입도로
낙석발생에 따른 도로통제

봉화군은 지난 2일 석포면 석포리 군도20호선 내 발생한 낙석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도로의 양방향 도로를 통제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응급보수로 낙석방지책 보수는 완료됐으나, 상부에서 떨어지는 암석이 낙석방지책 위로 낙하할 위험이 있어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를 추진 중이며,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 완료 전까지 도로를 통제해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전성기 기자

박재성 기자



사계절 문화거리가 살아숨쉬는 '문화예술관광 허브도시' 청도 유천문화마을에 가보자

70년대 모습 간직한 채 시간이 멈춘 듯한 거리 그곳이 바로 옛 정취의 숨결이 '고스란히' 묻은 청도유천문화마을이다

청도 가장 남쪽에는 동창천이란 내를 사이에 두고 밀양과 경계를 이루는 제법 큰 마을이 있다. 이곳 마을은 예전 내호리 유호리등으로 나뉘 불렀다. 지금은 거의 유천마을로 부른다. 이곳은 예부터 교통의 요지였다. 일제 강점기 시절 경부선 유천역이 있던 곳이었고 하천가의 너른 들판은 주변의 마을들을 풍년가를 물렸던 곳이다. 살기 좋았던 그 시절, 5월마다 열리는 유천장은 청도와 밀양에서는 알아주는 대목장이었다. 마을사람들은 "그 시절 밀양-청도장보다 유천장의 규모가 더 컸다"라고 입을 모았다. 지금 유천마을은 한때를 풍미했던 일부 건물들이 남아있다. 추억의 여행 장소로 아주 멋지다. 시간과 추억이 있는 유천마을이다.

유천마을은 유호마을과 내호마을 그리고 인근에 있는 몇 개의 마을을 합쳐서 통상 부르는 이름이다. 가장 중심이 되는 내호리 앞에는 동창-청도천이 만나서 개울이 넓어지는 곳이다. 마을 안쪽으로는 읍내 못잖은 반듯한 길이나 있다. 그 주변으로는 유천 우체국, 유천 초등학교, 유천농협 등 동네 이름과는 무관한 유천이란 지명을 모두 사용하는 가게나 공공서가 모여 있다. 유천(楡川)이란 지명은 행정 구역과는 상관 없이 사람들이 이곳에 느릅나무가 우거지고 강이 있어 그렇게 부른다. 청도군은 두 개의 인접한 마을은 뒤편으로 용각산이 있고 앞으로는 동창천이 흘러 '유천마을'이라 부른다고 했다. 유천마을에 가면 남매 시조 시인으로 유명한 이호우와 이영도의 생가건물이 있다. 이호우가 오빠이고 여영도가 여동생이다. 복원한 생가건물보다는 돌담장이 너무 예쁘다. 마을 앞 천변에는 이 두 사람을 기린 오누이 공원이 있다. 그래서 인지 청도군이 청도읍 유호리와 내호리 일대에 근대 문화거리인 '유천 문화마을'을 만들었다. 두 개의 인접한 마을은 뒤편으로 용각산이 있고 앞으로는 동창천이 흘러 '유천마을'이라 불

군 이 유천마을에 70-80년대 모습이 그대로 간직된 근대문화 자원인 약방, 다방, 점빵, 정미소, 소리사와 유천극장 등 근대건물을 복원했다. 옛 생활상을 그린 벽화거리를 조성, 그 시절의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탈바꿈되고 있다. 올 4월에는 '유천문화마을 문화나눔 행사'를 열었다. 문화 체험행사, 옛 사진 전시, 영화 상영 등으로 마을 주민들의 문화 향유의 기회를 선사했다. 지역민이 하나 되는 소통의 장을 마련, 많은 호응을 얻었다. 주말에는 많은 관광객이 방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과거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였던 유천마을에 남아 있는 근대문화자원을 활성화하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추가 사업을 적극 추진,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여겠다"라고 말했다. 김 군수는 "유천문화마을이 많은 관광객들을 청도군으로 끌어 모을 수 있는 마중물(펄프)에서 물이 나오지 않을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위에서 붓는 물이라는 뜻이 돼 군의 3대 미래 비전 중 하나인 '문화예술관광의 허브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위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명호